

[보도자료] 'F1 중계 명가' 쿠팡플레이, 총 5개 현장 방문하며 2025 F1 전 그랑프리 생중계!

2025. 3. 11.



쿠팡플레이가 14일(금) 호주 그랑프리로 개막하는 2025시즌 F1 전 그랑프리 생중계한다.

- 쿠팡플레이, 올해 75주년 맞이하는 포뮬러 원(F1) 2025 시즌 전 그랑프리 생중계
- 올 시즌 24개 그랑프리 중 총 5개 현장 찾아가 리포팅·중계 한층 더 생생하고 다채로운 중계 예고
- 3월 14일(금) 오전 10시 15분 호주 그랑프리 출발 세 차례 프랙티스부터 '시즌 프리뷰쇼'까지 풀 패키지 중계 선사
- 믿고 듣는 윤재수 해설위원, 안형진 캐스터, 진세민 아나운서와 함께 최고의 시청 경험 제공

2025. 03. 11. - 쿠팡플레이가 올해 75주년을 맞이한 '2025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이하 F1)'의 전 그랑프리 생중계한다.

쿠팡플레이는 ▲14일(금) 오전 10시 15분 호주 그랑프리 연습 세션 '프랙티스'을 시작으로 ▲15일(토) 오후 1시 20분 '퀄리파잉'과 ▲16일(일) 오후 12시 30분 '레이스'를 차례로 중계한다. 또한, 퀄리파잉 시작 1시간 전에 새 시즌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즌 프리뷰쇼'를 선보이며 F1 2025 시즌의 출발 신호를 울린다.

F1 중계 4년차인 쿠팡플레이는 2025 시즌을 맞이하며, F1 팬들의 최대 관심사인 현장 생중계와 리포팅의 확대를 예고했다. 2025년 F1 시즌은 전세계 22개국 24개 도시를 돌며 개최되는데, 이 중 총 5곳을 방문하여 중계의 현장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생

중계로는 지난 2년간 이어온 싱가포르 그랑프리에 더해 새로운 도시 한 곳을 추가로 찾아가며, 리포팅은 총 세 차례 예정됐다. 올 시즌 첫 현장 방문은 4월 일본 그랑프리, 진세민 아나운서의 현장 리포팅으로 진행된다. 그 외 찾아갈 도시들은 쿠팡플레이의 F1 중계를 통해 추후 공개된다.



쿠팡플레이가 호주 그랑프리의 프랙티스 전 세션을 포함, 퀄리파잉과 레이스까지 모든 일정을 생중계한다.

쿠팡플레이는 2023년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현장 생중계를 최초로 시도하며 국내 F1 중계의 새 장을 열었다. 생동감 넘치는 레이스 중계뿐 아니라 카 프레젠테이션, 타이어 개러지 탐방, 핫랩 체험 등 이제까지 볼 수 없던 다양한 기획을 선보여 F1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또한 진세민 아나운서가 현장의 열기를 직접 전하고 선수 및 관계자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는 현장 리포팅으로도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해왔다. 2023년 일본과 라스베이거스, 2024년 일본, 중국, 이탈리아, 아부다비에서 현장 리포팅을 진행했으며, 올 시즌을 앞두고는 10개 팀 드라이버와 대표, 새롭게 바뀌는 머신(레이싱카)을 소개하는 F1 75주년 기념 행사도 생중계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 F1은 주요 드라이버의 이적, 신예 6명의 합류로 새로운 에너지와 이야기가 넘칠 전망이다. 메르세데스에서 페라리로 이적한 루이스 해밀턴과 페라리에서 윌리엄스로 옮긴 카를로스 사인스에 시즌 초반 팬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은 5연속 챔피언 도전에 나선다. 35년 역사의 바르셀로나-카탈루냐 서킷에서 열리는 마지막 스페인 그랑프리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윤재수 해설위원은 “호주 그랑프리는 새 머신과 함께하는 해밀턴과 사인스, 여섯 명의 루키 등 크게 바뀐 드라이버 라인업으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첫 경기”라며, “6년 만에 호주에서 열리는 개막전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쿠팡플레이는 오는 14일(금) 호주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모나코 그랑프리,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마지막 스페인 그랑프리, 시즌 챔피언이 결정되는 12월 아부다비 그랑프리 등 2025 F1 모든 대회의 생중계와 하이라이트, 다시보기를 제공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